

에르네스트 루낭의 『예수전』 과

일본 근대문학의 관계*

-芥川竜之介의 <기적>을 중심으로-

윤 일**

目 次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 *참고문헌
 - *요지
-

1. 서 론

일본 기독교문학의 범주로서 기독교신자라는 표현의 주체와 기독교 정신이 구현된 소재,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표현의 시점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것을 든다면¹⁾ 현대에 이르러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시이나 린조(椎名麟三) 등이 등장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의 기독교문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 이 논문은 2006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PKS-2006-019)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전임강사.

1) 佐古純一郎『キリスト教と文学』(新教出版社、1965년)에 의하면 「<기독교문학>이라는 경우 표현의 주체의 문제와, 테마의 문제, 게다가 소재의 문제와 표현의 시점의 문제라는 문제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라며, 기독교문학의 주체의 문제는 「<기독교신자>로 규정할 수 있다」,소재론의 입장에서 「<기독교문학>은 성립할 수 없다」,또 기독교문학의 시점의 문제로서는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문학>의 목표」라고 기독교문학의 범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pp11-16참조. (본 논문에 있어서 모든 인용문의 번역은 논자에 의함.)

예수로 인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명치시대 소설가로 활약한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의 범신론적 태도에서 읽을 수 있는 인간 예수에 대한 인식²⁾, 대정시대 「시라카바파(白樺派)」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후반기 작품과 기독교에 대한 기술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예수에 대한 인식³⁾, 같은 「시라카바파(白樺派)」 무샤노코지 사네아츠(武者小路実篤)의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인간 예수에 대한 인식⁴⁾, 아구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의 인간 예수에 대한 동경의 문제⁵⁾, 등등 근대 일본의 문학자에 나타나는 인간 예수에 대한 문제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정통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있으며 내용적으로 문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신을 만물의 중심으로 보는 기독교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휴머니즘의 근대 문학은 서로 융화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인간 중심의 근대 문학 속에서 기독교의 절대자를 거절한 문학자가 선택한 것이 인간의 자아의 발견과 자각이라는 휴머니즘이었던 것으로서 근대 서구사상에 바탕을 둔 일본의 근대문학도 기독교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문학을 생각하는 경우 기독교를 배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⁶⁾고 할 정도로 양자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낭만주의의 거점인 『문학계』 동인의 약 90%가 기독교 세례인 혹은 입교인 이었다. 하지만 주지의 사실대로 기독교에 입신한 문학자들의 대부분은 교회와 거리를 두고 결국은 기독교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지목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를 신앙이 아닌 근대 사상으로써 받아들인 문제였다.

또한 교회의 제도적 구속을 꺼려한 문학자들의 자유스러운 자세도 신앙 부재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인간의 자아를 절대시한 개인주의의 문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는 수 없이 인간 예수가 등장한다. 물론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고, 그들의 문학 또한 기독교 문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문학자들은 인간의 자아를 그려 가는 과정

2) 참고 「徳富蘆花와 기독교」(「동북아문화연구」 제12집, 2007년 4월)에서 徳富蘆花의 범신론적 태도와 에르네스트 루낭의 관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3) 참고 「有島武郎のイエス論」(「일어교육」 제17집, 2000년 12월)에서 청년기 有島武郎의 정통 기독교적 신앙에서 인간 예수에 대한 인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논한 바 있다.

4) 참고 「武者小路実篤『耶蘇』-「新しき村」運動とのかかわりについて-」(「일어일문학」 제 21집, 2004년 2월)에서 武者小路実篤의 『耶蘇』에 나타난 인간 예수에 대한 인식을 논한 바 있다.

5) 참고 『芥川竜之介の復活』(제이앤씨, 2006년)에서 <부활>의 인간 예수에 대한 문제를 고찰한 바 있다.

6) 朝下忠 「日本近代文芸とキリスト教」(「聖隷学園浜松衛生短大紀要」第3号, 1980년 9월), p151.

중에 인간의 나약함에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이기주의를 근대 문학의 중심적 소재로 하고 있었다. 또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인간 예수를 작품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 예수를 인식했던 배경에는 문학자들의 개인적, 내부적 문제만이 존재했던 것일까?

이미 문학자들에 있어서 인간 예수의 수용과정의 문제를 파헤쳐 온 본 연구자로서는 당시의 외부적인 환경, 즉 기독교 신학, 또는 기독교관련 서적의 영향에 의해 문학자들이 인간 예수를 수용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품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문학자 개인의 본질적 문제만으로 돌리려하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각도에서 일본에 개신교가 들어온 1870년대부터 기독교 신학과의 관계에 주목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이 작가론, 작품론에 치중하며 문학자와 기독교의 관계를 논해왔으나 기독교를 이탈한 문학자들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예수를 작품 속에 고집해야 했던 근본적인 배경을 밝히는 것에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8년 일본어로 번역되기 이전부터 많은 문학자들에게 읽혀진 프랑스의 종교사학자인 에르네스트 루낭<1823-1892>(Ernest Renan)의 『예수전』(Vie de Jésus, 1863)과 문학자의 관계에 주목하고자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일본의 많은 문학자들이 루낭의 『예수전』에 관심을 갖고 일본어 번역본이 없었던 상태에서 어렵사리 영어 중역본이나 원본을 구입하면서까지 읽어야 했던 인간 예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⁷⁾. 루낭의 일본어 번역본으로 각각 명치시대와 대정시대, 소화시대에 번역된 『예수전』을 확보한 본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루낭의 『예수전』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 근대 문학자들이 『예수전』을 읽은 흔적을 쫓아 텍스트가 문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며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술하였다.

일본의 근대문학자 중에서 루낭의 『예수전』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진 것은 아구타가와에 관한 것이 유일할 것이다. 요시다 세이이치(吉田精一)⁸⁾에 의해 언급되어져 스즈키⁹⁾에 의해 지적된 비교연구는 작가의 예수관이 루낭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작품 해석을 둘러싼 작품론의 입장에 멈추고 있어 기독교 신학이라는 외부적 관점과 텍스트의 면밀한 분석에 의해 논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에 앞서 사코 준이치로(佐古純一郎)¹⁰⁾의 연구가 있었지

7) 주2, 주3, 주5 논자의 연구를 통하여 에르네스트 루낭과 문학자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 적은 있으나 본 논문의 제목과 같이 芥川竜之介의 인간 예수 인식과 관련하는 에르네스트 루낭의 『예수전』(Vie de Jésus, 1863)에 대한 비교 고찰의 분석은 없었다.

8) 「芥川竜之介の人と作品—『西方の人』を中心に—」(「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特集 芥川竜之介をめぐる人々>第11巻第14号 1966年)

9) 「芥川竜之介とキリスト教 『西方の人』を中心として」(「文学,語学」50호, 1968년12월)

만 스즈키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 것으로 본격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예수전』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밖에 시바타 다카시(柴田多賀治)¹¹⁾는 『서방의 사람』 『속 서방의 사람』(1927년 8월)을 중심으로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와일드(Wilde, Oscar Fingal O'sFlahertie, 1854-1900)의 유작인 『옥중기』(1905)와 비교 분석을 하면서 루나의 『예수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고찰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정인문¹²⁾에 의해 루나와 아쿠타가와와 <기적>과 <부활>에 대한 영향관계가 언급되었다.

또한 논자의 출처인 『芥川竜之介の復活』(제이앤씨, 2006년)도 마찬가지로 문학자들이 『예수전』을 읽은 것은 지적하고 있었으나 『예수전』을 주 텍스트로 하여 면밀히 비교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 외 문학자들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수 있으나 『예수전』을 텍스트로 하는 본 연구의 영역과 무관한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겠다.

2. 본 론

에르네스트 루나는 프랑스의 종교사학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인간적 사실로서 보고 역사상에 있어서의 인간 예수를 탐구해 온 사상가이기도 하다. 1860년부터 1861년까지 정부의 위탁으로 페니키아의 발굴을 지휘하여 그 성과를 『기독교기원사』(전7권, 1863-1883)에 정리하였는데 그 중에 제1권 수록의 『예수전』(Vie de Jésus, 1863)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Life of Jesus” tr. William G. Hutchison 1897 이 1908년 츠나지마 료센(綱島梁川)에 의해 중역되어 『루나예수전』(삼성사)으로, 1921년 가토 카즈오(加藤一夫)에 의해 『예수의 생애』(춘추사), 1922년 히로세 테츠시(広瀬哲士)에 의해 『예수』(동경당)로 각각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예수전』이 1908년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기 이전부터 많은 문학자들에게 읽혀진 흔적들이 본 연구자에 의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정시대에 중심적 역할을 한 아리시마는 미국유학 중에 양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휴가 중에 읽을 만한 정도의 소책자인 루나의 『예수전』을 필라델피아에서 구입했다는 내용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아리시마와 같이 「시라카바과(白

10) 『芥川竜之介における芸術の運命』(一古堂書店, 1956년)

11) 『芥川竜之介と英文学』(八潮出版社, 1993년)

12) 『1910, 20년대의 한일근대문학 교류사』(제이앤씨, 2003년) pp317-319.

樺派)』에서 활약한 무샤노코지도 자신의 작품 『예수』에서 루낭의 『예수전』을 읽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명치시대의 도쿠토미도 『예수전』이 번역되기 이전의 작품에서 이미 루낭의 『예수전』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아구타가와도 그의 작품 속에서 루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예수전』을 읽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이미 명치시대의 도쿠토미와 『예수전』에 대해서는 졸고¹³⁾를 통하여 이미 분석한 적이 있으나 명치시대 뿐 아니라 대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근대 문학자들에게 있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 예수로 변질되는 과정에 루낭의 『예수전』이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문학자들의 개인적, 내부적 문제 외에도 당시의 자유주의적 기독교 신학의 영향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아구타가와의 작품 중에서 루낭의 『예수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서방의 사람』(1927년 7월)을 텍스트로 『예수전』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인간 예수관에 대한 영향관계를 고찰하여 보겠다. 아구타가와는 인간 예수를 다루고 있는 다른 작가들 중에서도 예수의 수용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비교적 루낭에 의한 영향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작가로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 루낭의 『예수전』에 있어서의 <기적>에 대한 기술과 아구타가와의 <기적>에 대한 비교는 스즈키히데코(鈴木秀子)¹⁴⁾에 의해 「가장 현저한 영향으로 보이는 것은 기적에 관한 견해」라며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적>은 근대에 이르러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인본주의자들의 많은 비판이 대상이 되어왔던 것으로 그 중의 한 사람인 루낭은 다음과 이유를 들며 기독교의 <기적>을 배제하고 있었다¹⁵⁾.

초자연을 믿고 신약, 구약의 성서의 신성을 믿고 있는 구교, 신교의 정통파의 신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본서(논자注: 『예수전』)에 대한 반박 —이것이 가장 숫자가 많다.— 이 어떠한가 하면 그것들은 모두다 근본적으로 오해를 품고 있다. 만약 기적이 다소라도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서적은 오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13) 주2.

14) 주9의 p76.

15) 広瀬哲士訳 『耶蘇』(東京堂、1922年11月) p3.

超自然を信じ、新約旧約の聖書の神性を信じてゐる旧教新教の、正統派の神学者によつて成された本書の反駁—これが最も数が多い—は如何かといふと、それらは、何れも根本的に誤解を含んでゐる。若し奇跡が多少でも現実性のあるものであつたら、自分の書物は誤診の産物たるに過ぎない。

『예수전』을 통하여 예수를 인간으로 보며 성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한 루나의 의도에서 본다면 비과학적, 초자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기적>에 대한 부정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기적>은 다음과 같이 인식되어 왔다¹⁶⁾.

기독교에 있어서 특히 자주 이야기되며 일찍이 문제시 된 것이지만 불교, 그 밖의 종교에 있어서도 고대부터 수 없이 전승되는 초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들은 현상으로서 발생의 이유, 경과가 자연적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자연적 이성을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교주의 수태, 탄생(기독교에 있어서 성령에 의한 수태, 석가의 白像託胎, 겨드랑이에서의 탄생), 각종 질환의 위력적 돌발적 치유, 죽은 자의 소생, 자연현상의 위력적 지배 (질타하여 명령하는 것으로 풍랑을 진정시키거나 증오의 말 또는 의지에 의해 식물을 마르게 하거나 썩게 하거나, 지팡이 등에 의해 갑자기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등이다. <신약성서>의 복음서에서만 약 30 여개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기적>은 휴머니즘의 근대 문학자에게 있어 작품의 소재이기보다 반박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사실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근대 지식인들에게 있어 대상이 「경과가 자연적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자연적 이성을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결코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작품의 소재에 있어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등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소재를 다룬 예술과 달리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의 일본 근대문학에서 기독교의 <기적>과 같은 소재에 대해 냉소적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아구타가와와 <기적>과 루나의 <기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려는 의도는 예수를 인간으로 고찰한 근대 지식인들에게 가장 비판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적>에 대한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루나와의 영향관계는 물론 인간 예수를 작품 속에서 고집해야 했던 이유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16) 『世界大百科事典 5』 (平凡社, 1968年) pp604-605.

아구타가와와 기독교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본 논문에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겠으나 청년기의 성서 수용에서부터 작가 인생 최후의 『속서방의 사람』의 마지막 문장, 「우리는 엠마오의 여행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이 그의 인생에 걸쳐 기독교와의 관계, 특히 말년에 이르러 인간 예수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고 봐도 좋다. 아구타가와는 『서방의 사람』(1927년 7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루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루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을 막달라 마리아의 상상력 때문이라고 했다. 상상력 때문에 — 그러나 그녀의 상상력에 비약을 준 것은 그리스도이다.

ルナンはキリストの復活を見たのをマグダレナのマリアの想像力の為にした。想像力の為に、—しかし彼女の想像力に飛躍を与へたものはキリストである。「35 復活」¹⁷⁾

위의 밑줄 친 인용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막달라 마리아의 상상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아구타가가가 언급한 것은 루낭의 아래의 인용문에 의한 것이다¹⁸⁾.

일요일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부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무덤으로 왔다. 둘은 입구에서부터 굴러져 있어 시체는 맨 앞에 논 장소에 없었다. 동시에 가장 불가사의한 소문이 기독교의 신자 중에 퍼졌다. 『그는 부활했다』라는 외침이 제자들 안에서 번개처럼 달려 나갔다. 이르는 곳마다 애모의 정이 손쉽게 그에게 신용을 주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의 역사를 취급할 때 우리는 그 점을 연구하여 부활에 관한 전설의 기원을 찾아야만 한다. 역사가에 있어서 예수전은 그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끝난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제자들과 약간의 여성들의 가슴 속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수주일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그는 산 사람이며 위안자일 정도였다. 누구에 의해 그의 시체는 운반되어 사라졌는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 독실한 열심이 항상 부활의 신앙을 확립하는 한 무리의 이야기꽃을 피우게 했는가? 모순된 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막달라마리아의 강력한 상상이 이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행한 것만을 말해 두자. 사랑의 신성한 힘이여, 환상을 보는 부인의 정열이 부활한 신을 세계에 안겨주는 그 신성한 순간이여.

17) 인용문의 밑줄은 논자에 의한 것으로 이하 동일함. 단 본문의 인용은 『芥川竜之介全集 第十五卷』(岩波書店, 1997年)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18) 주15의 pp352~353.

日曜日の朝、マグダラのマリヤを先頭に、婦人達は朝早くから墓の所に来た。石は入口から転がされて居り、屍体は最早前に置いた場所に無かつた。同時に、最も不可思議な噂が基督教の同信者の中に広がつた。『彼は蘇れり』といふ叫びが弟子達の間に電光のやうに走つた。到るところで、愛慕の情が容易にそれに信用を置いた。どんな事が起つたのであつたか。使徒の歴史を取扱ふ時に、われらは其点を研究し、復活に関する伝説の起源を探るべきである。歴史家にとつては、イエスの伝は彼の最後の呼吸とともに終わった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彼が弟子達及び若干の献身の女性達の胸に遺した痕は、尚数週間彼等にとつて、彼が生きた人であり、慰安者であつた程であつた。誰によつて彼の遺骸は運び去られたのであつたか。如何なる事情の下に、篤信の熱心が常に復活の信仰を確立する一群の物語の花を開かせたのであるか。矛盾の史料が無いので、われらはそれを永久に知り得ない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マグダラのマリヤの強い想像が、此場合に主要な役目を演じたものであることだけを言つて置かう。愛の神聖な力よ、幻を見る婦人の情熱が、復活した神を世界に与へることにするその神聖の瞬間よ。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루나는 예수에 있어서 <부활>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활>은 예수를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상상력에 의해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루나의 말은 「역사가에 있어서 예수전은 그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끝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가인 루나는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신약복음서에 있어서의 <기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¹⁹⁾.

자신이 복음서가 기재하는 기적을 배제하는 것은 복음서 작자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복음서는 전설이다, 거기에는 역사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모두가 사실이라고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적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自分が福音書の記載する奇跡を排するのは、福音書作者が絶対に信用すべからざるものであることの予め証せられてゐる為めでは無い。自分が「福音書は伝説である、それには歴史もあるかも知れぬ、しかしながら、それにあることが悉く史実であることは必ずしもいへない」といふのは、彼等が奇跡を物語つてゐるからである。

19) 주15의 p5.

「막달라 마리아의 상상력」이라는 아구타가와와 기술과 「막달라 마리아의 강력한 상상」이라는 루낭의 인용문은 일치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서 루낭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스즈키²⁰⁾는 「가장 현저한 영향으로 보이는 것은 기적에 관한 견해」라며 『예수전』의 「제16장 기적」의 부분과 아구타가와와 영향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구타가와가 언급하는 <기적>에 관한 부분은 『예수전』의 「제16장 기적」에 실려 있으며 아구타가와와 『서방의 사람』도 「16 기적」의 제목으로 실려 있다. 숫자의 일치는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구타가와가 이야기하는 <기적>에 관한 부분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이 「16 기적」의 전문을 인용한다.

그리스도는 가끔 기적을 행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 하나의 비유를 만드는 것보다 쉬웠다. 그는 그를 위해서도 기적에 대한 혐오의 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를 위해서도, — 그리스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후대에 루소가 울부짖는 대로 그의 길을 가르치는 것에 불편을 준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어린 양들」은 항상 기적을 바랬다. 그리스도도 또한 3번에 한 번은 이 부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성격은 이러한 일면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책임을 회피했다. 「너의 신앙은 너를 낮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또 과학적으로 진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또 어느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 어느 오랜 병에 시달린 여자가 그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의 힘이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항상 다소 주저했던 것은 이러한 실감을 통해서 명백해 진다. 그리스도는 후대의 그리스도 교도는 물론, 그의 열두 제자들 보다 훨씬 날카로운 이지주의자였다.

クリストは時々奇跡を行つた。が、それは彼自身には一つの比喩を作るよりも用意だつた。彼はその為にも奇跡に対する嫌惡の情を抱いてゐた。その為にも、—キリストの使命を感じてゐたのは彼の道を教へることだつた。彼の奇跡を行ふことは後代にルツソオの叫び立つた通り、彼の道を教へるのは不便を与へるのに違ひなかつた。しかし彼の「小羊たち」はいつも奇跡を望んでゐた。クリストも亦三度に一度はこの願に従はずにはゐられなかつた。彼の人間的な、余りに人間的な性格はかう云ふ一面にも露はれてゐる。が、クリストは奇跡を行ふ度に必ず責任を回避してゐた。「お前の信仰はお前を癒した。」しかしそれは同時に又科学的に真理にも違ひなかつた。クリストは又或時はやむを得ず奇跡を行つた

20) 주9의 p76.

為に、一或長病に苦しんだ女の彼の衣にさはつた為に彼の力の脱けるのを感じた。彼の奇跡を行ふことにいつも多少のためらつたのはかう云ふ実感にも明らかである。クリストは後代のクリスト教徒は勿論、彼の十二人の弟子たちよりもはるかに鋭い理智主義者だつた。

우선 위의 인용문과 관련하는 성서의 구절은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마태복음 9장 20-22)이다. 인용된 성서와 아구타가와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기적>은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성서는 <기적>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닌 여자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성서주해²¹⁾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만졌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마음으로 만진 것은 이 여자뿐이었다. 「낫다」는 신약성서에서는 보통 「구원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육체의 치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성서에서는 육체적 치료를 가리키는 「낫다」가 아닌 신앙의 힘에 의한 「구원을 받으니라」로 번역하고 있어 병의 치료에 대한 육체적 <기적>보다는 신앙의 「구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어 성서에서는 육체적 치료를 뜻하는 「나음」과 신앙에 의한 「구원」을 명확히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성서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²²⁾로 적고 있다.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²³⁾로 적고 있다. 지금까지 인용된 성서를 보면 같은 신앙의 문제라 할지라도 육체적 치료와 구원의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적 치료만이 아닌 정신적 영역 또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원성까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 본 성서주해는 아구타가와가 참고한 일본어 성서에 대한 해석으로서 여자의 신앙의 문제가 육체적 치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구타

21) 『新聖書注解』(博文館、1995年) p116.

22) 신약성서 마태복음 15장 28절.

23) 신약성서 마태복음 17장 18절.

가와가 죽기 직전까지 보고 있던 『구신약전서』²⁴⁾가 「イエスふりかへり婦を見て曰ける女よ心安かれ爾の信仰なんちを愈せり即ち婦この時より愈」(22절)라고 하고 있어 여자의 신앙과 육체적 치료를 예수에 의한 <기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성서적 의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성서의 원어표기를 기준으로 논해야 할 것이나 논자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하지만 한국어 성서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자와 <기적>의 문제는 신앙과 관련한 「구원」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아구타가와가 이야기한 「책임회피」를 동반한 <기적>과는 의미가 다르다. 아구타가와는 예수가 「기적에 대한 혐오의 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즉 <기적>이 자신의 「길」을 방해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성서는 여자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기적>을 유발했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아구타가와는 「어느 오랜 병에 시달린 여자가 그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의 힘이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항상 다소 주저했던 것은 이러한 실감을 통해서 명백해 진다.」라는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는 성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²⁵⁾.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위의 인용문과 아구타가와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그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24) 아구타가와의 임종 시 머리맡에 놓여 있던 성경은 1916년 4월 발행한 것으로 논자가 본 논문을 집필하는데 있어 인용하고 있는 것은 1914년 1월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은 동일하다.

25) 신약성서 마가복음 5장 25-34절.(누가복음 8장 43-48절)

항상 다소 주저했던 것은 이러한 실감을 통해서 명백해 진다.」라는 부분이 아구타가와와 독자적인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성서 구절에서는 예수가 이미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구타가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에 대해 「주저」한 것과 달리 성서는 여자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매우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성서의 구절에 대한 주해를 살펴보기로 하자²⁶⁾.

예수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능력에 대해서 <곧> 알아챘다. 예수에게서 빠져나간 <능력>은 예수의 신으로서의 <능력>이다. 예수는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움직일 때 예수가 신인 것을 나타내는 「능력있는 일」을 행했다. 예수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다. 예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마음에 떠오른다. 거기서 예부터의 전통적 해석은 예수가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셨지만 여성에게 신앙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물었다고 설명한다. (중략) 예수가 여기서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그 사람과 더욱 더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갖고 단순한 병의 치료만이 아닌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가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알고자 한 이유가 「인격적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예수의 목적은 오로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신앙」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아구타가와가 「어린 양들」에게 「길」(진리)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적>을 주저하며 또한 자신의 몸에서 「힘」(능력)이 빠져 나가는 것을 느끼며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의 「길」에 대한 불완전한 상태를 예수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서에서와 같이 완전하며 영원한 형태의 진리였다면 <기적>에 대해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성서와 같이 여자의 고백이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서 <기적>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을 수 없는 「과학적」 「진리」의 소유자인 아구타가와가 기술한 <기적>은 유한상대적인 것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그의 예수가 전하고자 한 「길」(진리)은 영원성을 지닌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26) 주21의 p251.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르네스트 루낭의 『예수전』과 아구타가와 류노스케의 『서방의 사람』에 나타난 <기적>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아구타가와 루낭의 『예수전』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기적>에 대한 기술에 있어 인용문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인용문의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용적인 면까지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루낭은 「만약 기적이 다소라도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서적은 오진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수가 행한 <기적>이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구타가와 루낭과 달리 예수의 <기적>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자신의 「길」(진리)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한 <기적>으로서 아구타가와는 「과학적」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기적>은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났다. <기적>을 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며,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다소 주저」한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루낭과 달리 <기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완전하나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원성을 수반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동경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명치시대의 도쿠토미 로카나 대정시대의 아리시마 다케오, 무샤노코지 사네아츠 등의 경우 『예수전』을 읽고 인간 예수를 한 시대를 살아간 사상가로서 밖에 수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아구타가와는 영원에 대한 동경의 심리가 인간 예수의 <기적>을 통해 표출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1. 텍스트

에르네스트 루낭著, 綱島梁川訳, 安倍能成訳補 『ルナン氏耶蘇伝』
(日高有倫堂、1908年)

에르네스트 루낭著, 綱島梁川訳, 安倍能成訳補 『ルナン氏耶蘇伝』
(三星社、1921年)

에르네스트 루낭著, 広瀬哲士訳 『耶蘇』 (東京堂書店、1922年)

『芥川竜之介 「西方の人」 全注解』 (清水弘文堂、1982년)

『芥川竜之介全集』 (岩波書店、1995年)

『신약성서』

2. 단행본

佐古純一郎 『芥川竜之介における芸術の運命』 (一古堂書店、1956년)

佐古純一郎 『キリスト教と文学』 (新教出版社、1965년)、pp11-16.

柴田多賀治 『芥川竜之介と英文学』 (八潮出版社、1993년)

정인문 『1910,20년대의 한일근대문학 교류사』 (제이앤씨, 2003년), pp317-319.

윤 일 『芥川竜之介의復活』 (제이앤씨, 2006년)

4. 학술잡지

鈴木秀子 「芥川竜之介とキリスト教 『西方の人』を中心として」 (『文学,語学』 50호,
1968년12월)

朝下忠 「日本近代文芸とキリスト教」 (『聖隷学園浜松衛生短大紀要』 第3号, 1980년 9월), p151.

윤 일 「有島武郎のイエス論」 (『일어교육』 제17집, 2000년 12월)

윤 일 「武者小路実篤『耶蘇』-「新しき村」運動とのかかわりについて-」 (『일어일문학』 제 21집,
2004년 2월)

윤 일 「徳富蘆花와 기독교」 (『동북아문화연구』 제12집, 2007년 4월)

5. 사전

『世界大百科事典 5』 (平凡社、1968年)、pp604-605.

『新聖書注解』 (博文館、1995年)、p116.

要 旨

本稿はエルネスト・ルナンの『イエス伝』と芥川竜之介の『西方の人』における<奇跡>を中心にし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周知の通り、芥川は『イエス伝』の影響を受けており、そのなかでも<奇跡>に関する記述は引用文において一致するところがあった。が、本当にその内容においても影響が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は疑問が残る。ルナンはイエスが行った<奇跡>が非科学的であり、非合理的であるという理由で否定している。しかし、芥川は彼と違って、<奇跡>を認めている。ただし、自身の「道」に従うものたちに行った<奇跡>として、<奇跡>に対する「嫌悪の情」、「責任回避」などの単語からわかるように、不完全なものであった。「科学的」「真理」しか受け入れられない彼が、<奇跡>を不完全な形であっても、認め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は、永遠性に対する憧憬があったためであると思う。

キーワード：エルネスト、ルナン、耶蘇伝、イエス、復活、人間

투 고 : 2007. 8. 31
1차 심사 : 2007. 9. 8
2차 심사 : 2007. 9. 29

住 所 :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電 話 : 051-620-6719, 010-3199-6719
e-mail : sanghine@hanmail.net